

“기록 실천하기”

- 책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를 참고하여
-



과목명	해: 기호와 사유
담당 교수	이상신
제출일	2022-06-22
학과	불어불문학과
학번	202127873
성명	노경희

[목 차]

1. 서론	2p
2. 본론	
2-1. 내가 하는 다양한 기록물	3p
2-2. 기록을 시작한 후 달라진 삶	6p
2-3. 기록을 실천하는 방법	8p
3. 결론	9p
4. 참고문헌	10p

I. 서론

나는 매일 기록한다. 언제 어디서나 작은 노트를 챙겨 다니며 열심히도 기록한다. 일 년에 사용하는 노트의 양도 상당하다. 기록량이 많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무것도 쓰지 않는 사람이 허다하고, 기록을 한다 해도 나만큼 많은 양을 쓰는 사람은 주변에서 보지 못했다. 함께 기록하는 취미를 공유하고 싶어 이리저리 권유해도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듯이 무시하거나, 겨우 기록하길 다짐한 몇몇은 금방 그만두고 만다. 노트에 얼굴을 파묻고 열심히 무언가를 적고 있는 나를 보며 대부분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나는 대체 언제부터 기록을 시작했으며, 왜 기록을 할까? 정신 차리니 나는 기록에 중독되어 있었다. 매일같이 많은 양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루함을 느끼긴커녕 행복을 느끼고 있다. 조금은 광적으로 느껴지는 나의 기록 집착이 어느덧 햇수로 4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이제는 기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듯하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내가 하는 기록만을 말할 수 있으므로, 권위자의 힘을 빌려 나의 말에 신빙성을 높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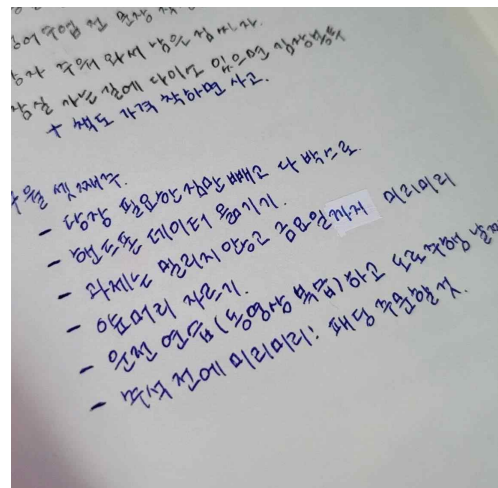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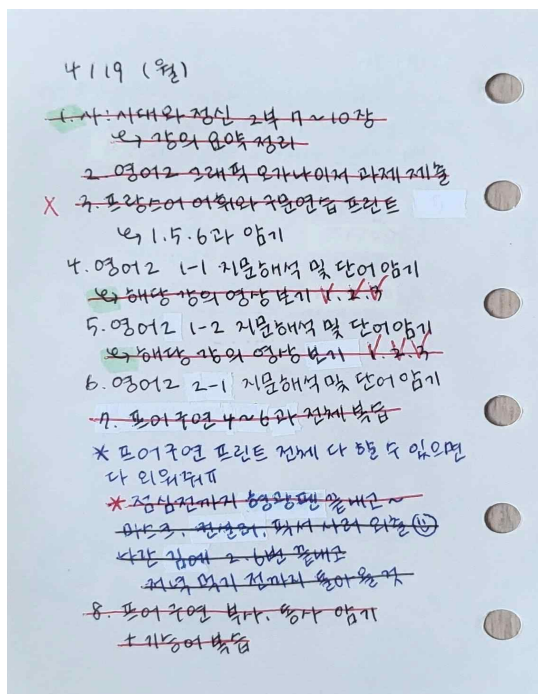
책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에선 제목 그대로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를 설명한다. 양극단의 특징을 가진 두 문화에 대한 설명은 ‘기록을 하기 전과 후의 나의 모습’을 설명한 것만 같다. 두 문화의 특징이 확연히 비교되는 것처럼, 기록을 전후로 한 나의 모습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중 어느 것이 우월하고, 또 어느 것이 미개하다고 단언할 순 없지만, 적어도 기록 전후 나의 모습만큼은 나 스스로 어떤 모습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나의 모습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의 특징을 인용한 것일 뿐, 어느 한 문화를 깎아내릴 의도가 없음을 글의 초입에서 밝힌다. 또, 낫다는 표현은 과거와 비교해 기록하는 나의 모습이 더 좋다는 표현일 뿐, 기록을 하는 자와 안 하는 자의 우열을 가릴 의도는 없다. 단지, 나와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바람에서 이 글을 작성한다.

이어지는 글에서 나는 기록하는 나를 면밀하게 파헤칠 것이다. 책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에

을 확인하고, 사이에 진행되는 조모임과 교수님 면담을 잊지 않고 참석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적어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월 공간에는 연휴, 생일, 여행, 기념일, 약속 등 중요한 일정도 함께 적는다. 만나기로 한 장소와 시간, 인물을 적어 시간이 지나도 간략하게나마 기억할 수 있다. 생일과 기념일, 연휴는 각각 노란색과 회색, 빨간색 스티커를 사용해서 눈에 잘 띄게 표시했다. 최근 월 공간엔 당일 본 전시회와 영화를 추가로 표시하고 있다. 달마다 어떤 문화생활을 얼마만큼 했는지 확인하기에 유용하다.

주 공간은 그 주에 잊지 않고 완료해야 할 일을 적는데, 월과 달리 완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일정을 적는 차이가 있다. 앞선 사진 속 가장 왼쪽에 날짜가 적히지 않은 빈칸이 주 공간이다. 일정을 정리하기 위한 중간 정거장이라 생각하면 편하다. 사진 속에는 아쉽게도 예시가 없지만, 내용을 적는다면 다음과 같다. ‘운전면허시험장 예약하기’, ‘어버이날 선물 주문하기’, ‘코로나 상생 지원금 신청하기’ 등이다.

일 공간은 하루 동안 해야 하는 일을 적는다. 번호를 매겨서 해야 할 일을 적고, 완료한 일은 빨강 볼펜으로 하나씩 지워나간다. 하루가 다 지났는데도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은 화살표로 선을 그어 확인하고, 취소된 일은 검정 볼펜으로 지워 완료한 일과 헷갈리지 않게 한다. 이 기록물은 앞선 월, 주 기록과 달리 얇고 가벼운 노트에 작성하여 매일 들고 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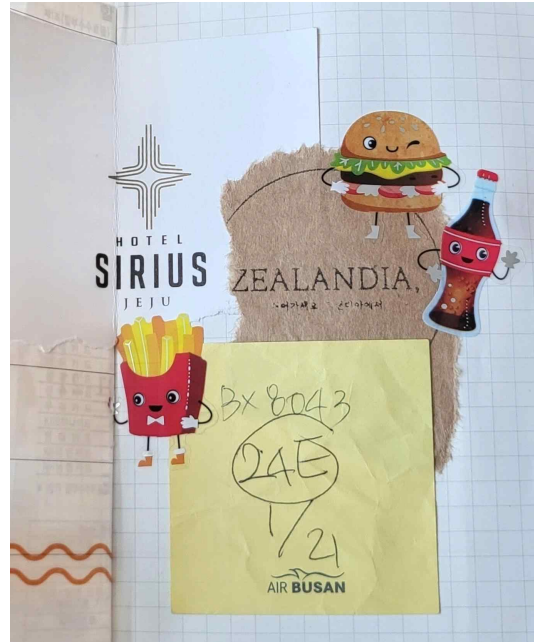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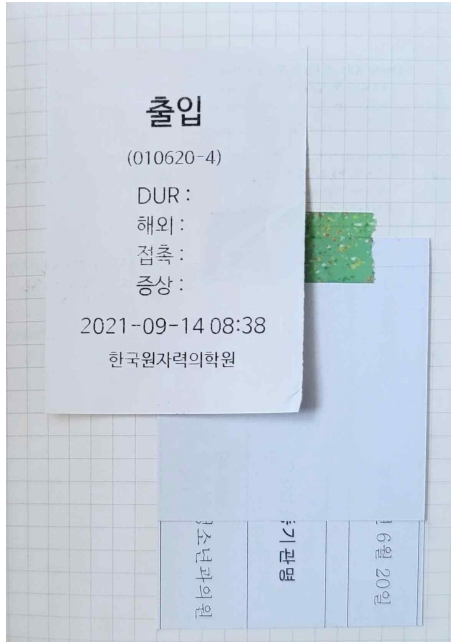


㉠. 일기

하루의 후기를 작성한다. 스케줄러는 시간이 지나면 장소, 시간, 인물만을 기억할 수 있을 뿐 그 공간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기록되지 않는다, 일기는 할 일만 나열하는 딱딱한 구조에서 벗어나 하루 동안 내가 느낀 감정을 고스란히 적는 공간이다. 현재는 적고 싶은 날에만 기록하고 있다. 단조롭게 반복되는 일상은 다시 읽을 때 재미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까닭이다. 긍정은 물론이고 부정적인 감정도 적는다. 나의 경우엔 이 또한 의미 있다고 판단했다.

㉔. 스크랩

일기에 적어두긴 아쉬운, 분류해서 모아놓고 싶은 글을 작성한다. 기록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일기의 부수적 요소이다. 영화, 드라마, 전시회 등 감상 후기가 주를 이루지만, 음식이 정말 맛있었던 식당과 카페, 이색적이었던 길거리 등 인상 깊었던 공간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 영화의 영수증표, 방문한 지역의 홍보물, 전시회 팸플릿 등을 오려 붙이고 감상과 후기를 적는다. 경험에 대한 감상은 이 노트 한 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㉕. 메모

떠오르는 모든 것을 적는 노트다. 하루 동안 느낀 다양한 감정들이 밤이 되면 하나의 감정으로 미화되어 있었다.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기 위해 나는 계속해서 일기를 검열했다. 정말 재미있던 경험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호흡과 맥박이 진정되어 글이 차분해졌다. 사라지는 감정이 아쉬운 마음에 작은 노트를 추가했다. 이 외에도 우연히 스친 좋은 문장, 머릿속으로 정리하긴 어려운 복잡한 생각, 의미 없는 낙서까지 온갖 잡다한 것들로 채워나가고 있다. 일기와 달리 생각의 흐름을 확인하기에 유용하다. 가장 빠르게 채워지는 노트로,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8권의 노트가 쌓였다.



㊤. 블로그

읽히는 글을 작성한다. 혼자 하는 기록을 충분히 즐긴 후, 함께하는 기록도 즐겨보고자 시작했다. 스케줄러나 일기를 쓰자고 하면 금방 질려서 못한다는 답변이 대부분인데, 블로그를 하자는 권유에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준비물이 없어 편하고, 다 같이 한다는 사실이 동기부여가 되는 까닭이 아닐까 추측한다. 블로그에는 공유해도 되는 간단한 일상이나 생각을 적는다. 나는 이 블로그를 ‘알아두면 쓸데없는 노경희 사전’이라 명명했다. 블로그에는 다음과 같이 글을 쓴다.

“봄에 분갈이를 계획했던 그 화분을 본가로 이송했다. 분갈이를 위해 이송한 건 아니고... 시들어 죽어가길래 심폐소생을 위해 이송했다. 창이 하나라 맞바람도 안 치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아서 점점 시들어갔다. 물도 열심히 챙겨주었고, 혹시나 바람이 부족할까 멀리서 선풍기도 트는 쇼도 했는데... 자취하면서 화분 키울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아야겠다.”

“요즘 게임을 하고 싶어서 스팀을 들락날락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즐긴 게임은 <A Short Hike> 인디게임이다. 작년 8월에 플레이해서 최근에 즐겼다고 말하기 무안할 정도지만, 아무튼 최근이다. 제목 그대로 짧은 산행, '깃털을 모아 산을 오르는 것'이 이 게임의 목표다. 바로 산에 오르진 않았다. 보트도 타고, 낚시도 하고, 발리볼도 하고, 달리기 시험도 하고~ 열심히 놀다가 정신 차리면 어느새 산꼭대기에 있다. 기념사진도 멋있게 찍었고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산에서 나오는 기류에 몸을 맡겨 활강하는 순간엔 정말이지 행복했다. 이런 게임을 또 하고 싶은데 고르는 데만 한참이다.”

“취미가 많은 건 좋은데 그만큼 돈도 많이 들어서 문제다. 특히 수집하는 걸 좋아하는 나는 더더욱... 작년 겨울에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에 못 간 게 한이다. 기말고사를 막 끝낸 나에게 체력은 남아있지 않았다. 죄다 쓸어왔어야 했는데!! 유튜브와 블로그 속 참여 후기를 보며 눈물만 흘렸다. 올해 여름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참여할 거다. 가서 귀여운 것들 잔뜩 사와야지. (함께 갈 의사가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하는 다섯 개의 기록물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기록물 외에도 문장을 수집하고 어휘력을 높이기 위해 적는 필사 노트, 소비를 회고하고 반성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 노트가 있으나 기록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기에 제외하였다.

2. 기록을 시작한 후 달라진 삶

기록에 둘러싸인 삶을 사는 나는 기록하지 않는 나를 더는 상상할 수 없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이 바뀌었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내가 기록하면서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세세한 이유를 가져와도 결국 이 두 가지로 귀결된다. 지금부터 언급하는 내용은 기록의 장점이며, 이를 역전한 것이 기록을 하기 전의 나의 모습이라 생각하면 글을 읽기에 수월하다. 이제 기록의 가장 큰 매력 두 가지를 알아보자.

㊤. 돌아오지 않는 순간들을 붙잡아, 삶의 활력으로 사용하기

지금보다도 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나는, 기억하는 일이 쉽다고 자신했었다. 학교에선 늘 일기 쓰기를 숙제로 내어주곤 했는데, 개학 전까지 미뤄 툭툭대며 쓰기 일췌였다. 매일 밤 15분을 책상에 앉아 팔 아프게 쓰는 수고로움은 헛되어 보였다. 기억하

면 그만이라며 으스대던 그 잘난 기억력은 곧 한계를 느꼈다. 바쁜 일상 속 생겨나는 크고 작은 이벤트를 기억하는 일은 즐거움보다는 성가심으로 다가왔다. 분명 행복했다고 믿은 순간들이 인간관계에 잊히고, 학업에 잊혔다. 고단해진 나의 몸은 기억을 편리하게 변질시켰고, 급기야 새롭게 쌓이는 경험마저도 ‘좋았다’, ‘유익했다’, ‘재미있었다’ 등 단순한 감상으로 표현하기에 그쳤다. 아쉬움은 쌓이고 쌓여 기록의 필요성을 실감케 했다.

“어떤 문화 속에서 쓰기가 사용되고 나서도 한참 동안은 쓰기에 높은 가치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씌어진 기록에는 입으로 한 말 이상으로 먼 과거의 일들을 확실하게 해주는 힘이 있으며, (후략)” (155p)

“사고에는 몇 가지 연속성이 필요하다. 쓰기는 텍스트 내에서 한 ‘줄(line)’의 정신 외적인 연속성을 확립한다. 비록 주위가 산만해서 지금 읽는 텍스트의 문맥을 잘 모른다거나 그 문맥 자체를 잊어버렸더라도 텍스트를 쭉 다시 읽으면 그 문맥은 회복될 수 있다. 되돌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며 순수하게 ‘그 자리’의 일이다. 정신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면 된다.” (67p)

기록은 매 순간을 소중하게 하는 힘이 있다. 매일매일 기록하다 보니 주변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내가 어떤 공간을 좋아하는지, 누구와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지, 어떤 행동에 기뻐하는지 등 단조로운 일상이라도 매일 조금씩 기록했다. 일상 밖 고급스러운 여행과 음식 말고도, 일상 속 산책에서 만난 귀여운 강아지와 저녁에 먹은 맛있는 김치찌개가 애뜻하게 느껴진다. 내가 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써주지 않는다. 매일 밤 15분을 책상에 앉아 팔 아프게 쓴 수고로움은 나의 행복 지표가 되었다. 이따금 스트레스로 지쳐 삶의 활력을 잃어버렸더라도 텍스트를 쭉 다시 읽으면 그 활력은 회복할 수 있다. 소중한 순간을 붙잡아 오래도록 곱씹기 위해선 기록이 필요하다.

기억하고 싶은 순간은 기록되어야 한다.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순간까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은 간편하지만 찰나에 느낀 감정과 생각까지 담아내기엔 부족하다. 단순한 감상 표현으로 덧씌워진 추억은 남고 닳아서 점점 무의미해지고, 그만큼 쉽게 잊힌다. 추억은 상세히 기록될수록 밀도 높은 행복을 낳는다.

㉠. 끊임없이 나를 객관화하며, 나만의 기준점 만들기

누군가는 비행기를 탈 때, 꼭 자신의 일기장을 들고 탄다고 한다. 세상에 어떤 책보다도 스스로 만들어낸 일기장이 가장 재미있다는 이유에서다. 나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제 몇 년 후에 다시 들여다보면 재미있지 않겠냐는 막연한 생각에서 시작했다. 지난 사 년간 꾸준히 일정을 정리하고, 일기를 쓰고, 책과 영화의 문장을 수집하고, 굴러다니는 생각들을 정리하다 보니 기록은 생각보다 나의 많은 부분을 비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치 거울 속의 나를 속속들이 관찰하는 듯하다.

철저히 나의 의도대로 작성되는 기록은 그 자체로 ‘내가 생각하는 나’를 나타낸다. 작성하는 순간에 왜곡할 수도 있지만, 왜곡한 기록마저 나의 모습이다. 기록은 나와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쓰기는 언제나 말하기의 모방(imitation talking)이다. 따라서 일기 속에서 나는 자신에게 말을 거는 시늉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내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게다가 쓰기가 없다면, 또는 실제로 인쇄라는 것이 없다면 그런 식으로 자신

에게 말을 걸 수도 없었으리라.” (165p)

“쓰기에서는 반성적인 선택 작업을 통해 모순점을 제거하는 것과 말의 선택이 가능해지는 데, 이는 쓰기에서 구디가 말하는 ‘뒤돌아보는 통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169p)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스스로 계속해서 객관화하는 것이다. 기록으로 확인한 ‘내가 생각하는 나’는 자존감과 직결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기대를 제한시키고, 높은 사람은 실패에 부딪혔을 때 쉽게 좌절한다. 자존감의 핵심은 자신을 무조건 치켜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정확히 인지해서 지속적인 성취감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나의 기록에서 마주한 나는 적나라하다. 그 적나라한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척도를 알고 방향을 깨우칠 수 있다.

3. 기록을 실천하는 방법

기록의 장점과 중요성을 알아도, 막상 실천하기란 어려운 법이다. 글을 쓰고 있는 나 또한 지난 사 년간 다사다난한 기록의 굴곡을 겪었다. 처음부터 거창한 기록을 하는 것보다, 오래도록 가져갈 수 있는 습관적인 기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 년간의 굴곡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나의 기록 역사를 바탕으로 기록을 습관으로 만드는 실천 방법을 고안해보았다.

㉠. 나의 취향으로 구성된 도구 찾기

자신에게 잘 맞는 도구를 찾는 것은 좋은 시작이다. 주변에서 샤프와 볼펜을 사용하는 사람을 보는 일이 드물어진 일이 신기하다. 당장 수업에서 필기하는 사람들을 봐도 종지와 볼펜보다는 전자기기에 적어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는 아날로그를 좋아해서 전자기기를 시도해도 번번이 실패했다. 안 맞는 도구를 계속해서 시도할 필요는 없다. 나의 경우에서나 검게 변한 손날을 확인하고 지우고 잘못 써버린 글을 화이트로 긋는 행동을 좋아할 뿐이다. 여러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와 달리 종이 노트는 온전히 하나의 내용을 담는다는 점에서 난 언제나 종지에 하는 기록을 권하지만, 여러 기록을 분권하는 것이 싫고 손에 들기 불편하다면 다른 도구를 사용하면 된다. 도구에 따라 필체와 표현이 변할 수 있기에 최대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편이 좋다. 표지와 내지, 구성부터 펜이 닿는 감촉까지도 신경 써서 구매한 도구는 기록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 덧 만들기

도구들을 나의 생활 반경에 흩뿌려 놓는다.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흘러가는 감정들을 붙잡아두기 위함이다. 기록하고 싶은 순간에 도구가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기록을 그만두게 된다. 나의 취향으로 구성된 노트가 정말 소중한 바람에, 닳는 게 아까워 서랍 속에 고이 보관한다면 기록은 시작될 수 없다. 덧을 만드는 이유엔 눈에 보이면 쓰고 싶어진다는 이유도 포함한다. 나의 취향에 맞게 준비한 노트와 필기구를 보면 하루빨리 책장을 넘기고 싶어진다.

㉢. 강박적인 기록에서 벗어나기

어떤 것을 기록해야 할지 모르겠을 땐 생각나는 것부터 가볍게 적는다. 오늘 본 드라마에서 웃겼던 대사, 내일까지 배송시킬 물건, 어제 샀던 옷의 마음에 드는 부분 등 모든 게 대상이다. 좋아하는 공간에서 좋아하는 공간에 대해 기록하는 것도 좋다. 여행 중 방문했던 작은 가

게, 먹었던 맛있는 디저트로도 충분하다. 이것마저도 부담이라면 낙서도 기록이라고 생각한다. 통화 중 받아적은 장소의 위치, 색연필 색상 확인을 위해 그은 곡선 등 무엇이든 기록이 된다. 나의 경우에는 글씨가 못났다고 생각해 계속해서 종이를 갈기갈기 찢었는데, 찢어진 흔적마저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 조금은 어긋난 글자도, 뺄뚫어진 원도 하나의 기록이라 생각하고 강박에서 벗어나면 쉽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를 종합한 나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구성을 자주 바꾸는 나는 작고 얇은 노트를 사용한다. 휴대하기도 편리하고 한 권이 금세 가득 채워져 성취감이 크기 때문이다. 노트는 아무런 디자인이 없는 무지 형식을 사용하는데, 맞춰 써야 한다는 강박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추천한다. 기록하는 글의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더더욱 무지 노트가 좋다. 스스로 칸을 분할시켜 구성에 스스로 활용도를 부여하는 방법도 재미있을 것이다. 볼펜보다도 샤프를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잘못 작성했을 때 수정이 편리하고 사각거리는 소리를 좋아하는 이유에서다. 필기구의 경우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에 함부로 추천할 수 없다. 볼펜의 부드러운 굴림이 좋을 수 있고, 만년필의 거친 필기감이 좋을 수도 있고, 태블릿 펜의 다양한 기능이 좋을 수 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온전히 기록해둔 셈이니 도구에 강박 가질 필요는 더더욱 없다. 자신이 남긴 기록은 모이고 쌓여 한 권의 책이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나의 기록물, 그 기록물로 인해 바뀐 나의 모습, 기록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방법을 정리했다. 사용하고 있는 기록의 종류는 크게 총 다섯 가지로, 기록을 추가한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일정을 정리하는 스케줄러, 하루를 돌아보는 일기, 기억을 도와주는 스크랩, 생각을 붙잡는 메모, 취미를 공유하는 블로그가 이에 해당한다. 각 기록물의 추가된 이유와 쓰임새를 함께 적어두었다. 다음으로 위의 기록들로 인해 나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해보았다. 기록은 돌아오지 않는 순간들을 붙잡아 삶의 활력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며, 끊임없이 나를 객관화하여 나만의 기준점을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록은 자칫 미루거나 지겨워질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세 가지도 함께 언급했다. 자신에게 맞는 재료를 찾아,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글을 쓸 땐 강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해당한다.

이번 보고서를 쓰기 위해 지난 사 년간 열심히도 작성했던 나의 기록물 전부를 읽어보았다. 많이도 바뀐 구성, 글씨체, 노트, 필기구 사이에서 변치 않은 한 가지는 기록하는 나 자신에게 보내는 아낌없는 칭찬이었다. 늘 한 해의 마지막에 “올해도 열심히 기록했다.”라는 문장이 항상 적혀 있다. 어떤 일을 해도 쉽게 싫증이 나고 질리는 내가 이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이 놀랍고 뿌듯하다. 늘려놓은 양에 지쳐 기록에 회의를 느끼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극복하고 행복하게 기록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글의 초입에서 말했듯이 나의 글을 읽고, 글을 읽는 당신이 기록에 흥미를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기록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이 더더욱 늘어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IV. 참고문헌

- 월터 J.옹, 이기우 외 1명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09
- 나의 모든 기록물. 2019년부터 2022년까지